

## 비유와 설교 (2)

—성서 본문과 설교(6)—

—安 炳 茂—

복음서의 비유들은 일정한 경향을 가진 것들이 있다. 그중에 겨자씨의 비유(마가4:30—32=마태 13:31—32=누가 13:18—19) 뿌린씨의 비유(마가 4:26—29) 누룩의 비유(마태 13:33=누가 13:20)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다. 그러면 이런 비유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우선 마가의 자료로 세복음에 다 있는 겨자씨의 비유를 분석하고 그 전체를 관련시켜 보자.

### 겨자씨의 비유

우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이 비유에서 찾아서 설명하려는 생각을 가질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려면 어쩔수 없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는수 밖에 없다. 가령 씨라든지 또는 새가 것들일수 있는 나무 따위

를 그나라의 본질로 파악하고 그것을 여러가지로 풀이해 보게 될 것이다. 어떤이는 이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安息할 수 있는 무한한 곳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나라의 초대의 설교를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나라의 크기를 설명하려고 했다면 아무리 자라야 3메—타 밖에 자랄수 없는 겨자나무에 비기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 安息處라는 뜻을 이것으로 나타내는 것도 전혀 적당하지 않다.

설명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당히 그나라의 실상을 설명한다고 해도 이 비유의 한 측면만 해석하고 그 외의 것은 묵살한 것이 된다. 가령 본 비유에서 이 씨가 특별히 적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땅에 뿌려질 때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지만」 한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제거된다.

피안적인 구원에 대한 동경과 환

상에 젖는 경향이 비교적 강한 한  
국의 교인들 앞에 선 설교자는 그  
들의 욕구에 적응해서 어떻게든 그  
나라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싶은  
충동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적어  
도 본 비유에서는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수 있는 어떤 단서도 찾  
아 볼 수 없다.

그런데 비단 이 비유뿐 만이 아  
니라, 우리는 복음서에 하나님나라  
자체를 묘사한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나라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면 생명(마가 9:46)  
또는 식탁을 함께함(마태 8:11, 마  
가 14:25) 정도다. 하나님의 나라  
비유라고 한것도 모두 그나라에의  
초대거나 그 앞에 선 인간상 아니면  
그 나라의 도래의 확실성을 말할뿐  
이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그 나  
라를 그려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 비유의 요점은 가장 작은 것  
이 어떤 초목보다 더 크게 자랐다  
는 것을 강조한 점이다. 즉 적은  
것과 크게 된것을 대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으로 무엇을 말하자는  
것인가? 두 가지 다른 점에 액센트  
를 둘 수 있다. 하나는 적던 것이  
그처럼 크게 자랐다는 사실에 주목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하나  
님의 나라는 어느 구석에서 미미하  
게 시작되나 그것은 점점 자라서  
마침내 큰 것이 된다는 뜻으로 해  
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天國은

이 歷史안에서 發展한다는 것이다.  
사회윤리에 관심하는 이들, 가령  
미국의 「사회복음」(social gospel)파  
위는 그렇게 해석하므로써 이 땅위  
에서 사회정의를 세우고 福祉사회  
를 이룩해 나가는 것을 바로 하나  
님의 나라의 실현단계라고 보고 있  
다. 그런데 설교자가 이런것을 강  
조할 때 청중의 반응은 곧 돌로 같  
릴 것이다. 즉 이 세상이 점점 잘  
돼가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그 말  
씀에 더욱 힘을 얻고 긍정할 것이  
며 세상이 오히려 타락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중요한 근  
본문제가 있다. 첫째 이러한 설교  
는 듣는 자의 객관적 판단력에 호  
소하는 것이지 그의 信仰的 決斷에  
호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렇게되면 설교는 實證論에 집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실증적으로 납  
득시키는 일이라면 설교보다는 차  
라리 과학적 증명, 사회학적 분석  
이나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  
이 훨씬 효과적인 것이 될 것이다.  
설교란 그런 것일까? 둘째 큰 문  
제는 복음서에는 그나라의 실증을  
보여달라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러한 요구를 책망한데가 여러곳  
있다는 사실이다(마가 8:11~ 마태  
12:38~). 그리고 그 날과 그 시간  
을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마가 13:32~)고 한다. 복음서에는 그나라가 언제 어떻게 오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고 한다(누가 17:20~). 과거에 이 역사안에 일어나는 징후를 관찰하여 그날을 측정하여 많은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린 예가 얼마든지 있는가 하면 또 歷史의 어느 시기나 어떤 勢力을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시켜서 결국 독재에로 휘둘러 한 예가 얼마든지 있다. 하여간 설교자는 이 비유에서 발전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확신시킬려면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가장 적은 것이 큰것이 됐다는 이 대조에서 그 본뜻을 찾을 수도 있다. 즉 자랐다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의스러운 사실자체다. 즉 뜻밖의 일처럼 사람의 예상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본뜻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적으로 到來한다는 뜻이 될 것이다. 만일 이렇게 本文을 파악한다면 설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나라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 비록 이 세상은 암흑속에 있고 부조리와 모순으로 차 있어도 그런것에 구해받지 않고 그나라는 돌연히 到來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 세

계의 현실이 永遠한 牙城처럼 보여도 그것에 굴해서는 안되며 언제나 깨어 있어 그 나라에 의한 희망 속에서 이 세계의 악과 싸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그나라는 숨어서 자라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숨어 있는한 그것의 출현은 人間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돌연한 사건인 것이다.

어느것이 옳은 本文의 뜻인가? 이 비유자체만을 볼때 두가지 주장에서 하나만을 선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제 이 비유와 같은 성격을 가진 다른 비유들을 보자.

#### 뿌린 씨의 비유(마가 4:26~):

우리 성서번역에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씨가 싹이 나고 자란다」 「처음에는 싹이 돋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는 이삭에 올 찬알알이 맺인다」 등 자라나는 순서를 자세히 서술한다. 이점에서 보면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發展한데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反面에 농부는 씨를 심으고 밤에 자고 낮에 깨고 하는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다. 또 땅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28)로 번역된 원문은 땅이 「자율적으로」(automate)라는 말이 첨가돼있다. 이것은 농부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는 것과 그 씨가 그렇게 자라는 것을 대조시키므로써 자라나는 것을 발하기 보다는 그 성장의 경탄스러움에 액센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사건으로 도래한다는데 이 비유의 본뜻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本文의 설교는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선물로 주어진다든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萬一에 그나라가 네 손 여하에 달린 것이라면 그것은 은총의 나라일 것도 없고 限界를 느끼는 人間에는 절망밖에 남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아니고 네 힘은 하잘것 없지만 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정말 복음의 설교일 수 있을 것이다.

**누룩의 비유 :**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하고 여인이 가져다가 가두어서 탈속에 넣었더니 마침내 온 덩이를 부풀게 했다고 한다. 이 비유에서도 누룩에 많은 가루를 모두 부풀게 했다는 것만 따면 그 나라는 발전한다는데 본뜻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同時에 이것을 뿌린 씨의 비유와 관련시켜 볼 때 이 누룩을 가두어 넣은 이 女人의 능력과 그 누룩의 능력을 대조시킨 것으로 보면 또다시 그 나라가 점점 자라서 팽창해 간다는데

액센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人間의 영역을 벗어난 경탄스러운 사건으로 온다는 데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

×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은 因果律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성격을 가진다. 설교에는 이 근본적 성격이 언제나 뚜렷해야 한다. 그러한 그 나라가 역사안에서 자라고 있다든지 아니면 돌연히 초자연적으로 到來한다는 것의 구별은 그리 중요치 않다. 요는 그것은 人間의 제한, 게으름, 불행, 절망등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온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不正도 惡한 勢力도 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전하는데 있어서 그 청중의 상황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청음에도 언급했지만 청중에 따라서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가지로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설교자는 바로 이 청중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구체화 해야 할 것이다.

가령 예수가 어떤 비유를 말씀했을 때 그것은 듣는자에게 어떻게 해석됐을까? 마가와 마태에 의하면 그 대상은 이스라엘 군중이다. 이 군중은 나라를 잃어버린지 이미 오래고 새로운 세계(하나님의 나라)



가 오리라는 약속을 알고 있지만 이미 지쳐 있었을 것이다. 메시아 운동에 의해서 무참하게 피만 흘린 사실이 아직 기억에 새롭다. 유대교는 벌써 지도층의 독점물 처럼 됐고 이들은 종교적 명에서 시달려 왔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율법에서 볼 때 아무런 구원의 보장이 없다. 어디로 보나 그 나라가 올만한 여건이 형성돼 있지 않다. 그런데 말일 저들에게 그나라의 도래는 그들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해석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까닭은 당시의 율법학자들도 그러한 약속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문제는 바로 自信이 없는데 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전체가 체념속에서 生氣를 잃고 있다. 만일 위의 상상이 맞다면, 저들에게 그 말씀이 복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 어떠한 처지야 어떻든, 「당신들이 비록 全能하고 죄속에 있다고 해도 그 나라는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상황이나 생활에 저해받지 않고 그 뜻을 관철할 것입니다」로 이해될 때 일 것이다.

그런데 그후의 그리스도인들이 (초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석했을까? 저들은 예수를 통해서 그 나라가 곧 到來할 것으로 믿었으나 예수는 죽음으로 그생을 끝냈다. 저들은 절망적이었다. 그러

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저들은 다시 그 나라가 곧 오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오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받아 고향을 등저야 했다. 數十年이 지나도 그날은 오지 않는다. 이런 처지에 있는 그들은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 나라는 시작됐다. 그 씨는 심어졌다. 누룩은 가루속에 넣어졌다. 그것은 제자씨만큼 적은 일이었다. 아직도 어떤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것은 예수의 사건이 입증한다. 이러한 결론에서 저들은 다시 용기를 얻고 복음을 전하는 전선에서 분투할 새로운 자세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저들은 그것이 단순한 그 나라 도래의 약속만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가 태동하고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이 本文으로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우리의 대상은 失意에 빠져있다. 政治적으로는 국제정세로 보나 국내정세로 보거나 절대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현재는 경제공황속에 있다. 이들에게 그나라가 자라가고 있다고 할까? 만일 저들이 어디 좀 보여달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대답할까? 교회를 말할까? 그러나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들에게 그말이

납득이 될까? 만일 저들에게 그 나라가 자라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못보내 준다면 저들은 어디서 그것을 찾을가? 저들은 쉽게 메시아王國을 구체적으로 약속하는 新興宗教에로 달릴 가능성만 크게 해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들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것은 그 나라는 어떤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到來하고 말 것이라는 확신이다. 그러나 同時に 그 나라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할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해 해주어야 할 것이다. 즉 그 나라와 어떤 宗團, 어떤 場所, 特定の 時期와의 同一化의 경향을 막아 주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고 할 것인가? 먼저 저들을 그 체념상태에서 건져주는 일이다. 상황에서 절망하고 正義대로 사는데 자신을 잃은 저들에게, 그래서 자기를 폐쇄해 버린 저들에게 그 주저 앓은 상태에서 脫出해 나와 미래를 향해 개방된 자세와 확신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저들이 칙제상태를 분석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저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나 또 저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이 모두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폭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다시 自信을 찾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의 일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하는데로 方向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失意, 공포, 체념등에서 해방시켜서, 지금 여기서 그들의 하는 일에 정진하게 하는 일이다.

자기 하는 일에 정진하도록 하라고 했다. 어떻게? 가령 씨를 뿌리는 농부, 또는 부엌에서 일만 계속하는 主婦,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지친 사람들, 저들은 그일을 계속하면서 어떤 희망을 걸지 않고 그저 마지 못해 한다. 내가 하는 일의 결과는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일을 하면서도 기쁨은 없다. 그러한 그들에게 더 많이, 더 부지런히 하라는 체적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주는 일이다. 그것은 씨를 뿌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수확을 건울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고, 당신은 그저 심었을 뿐이나 당신이 아닌 大地가 그것을 당신도 모르게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제한된 일속에서 큰 일을 하고 있으며 당신의 삶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당신의 것인듯 하면서 이미 당신의 힘 밖에 있는 처지에 있으나 그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당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강단을 안중에 둘 때 크게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씨를 심는다, 누룩을 둔다를

心田 또는 心粉에 뿌려졌다고 해석하는 일이다. 이것은 佛敎 영향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個人의 구원만 강조하게 될 뿐 아니라, 自身에 실패한 처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기 쉽다. 그 나라는 사람의 마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世界이 歷史에 到來한다. 밭, 가루 서 말은 절대 個人의 마음일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全體의 구원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個人의 구원」이라는데 너무 집착해서 오히려 자기에게서 떠나지 못하므로 다시 律法主義者로 떨어지고 있는 저들을 全體의 구원에 눈을 돌리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문제에 매여 전진 궁궁하는 상태에서 전체의 대열에 참여한 감격을 안겨 주어야 할 것이다. 씨를 심은 農夫가 이것이 자라나야 내가 먹고 살 것인데 하는 생각에 잡혀 있는한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환희를 느낄 수 없다. 그는 자기의 利害關係에서 풀려나와서 「生命전체」를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의 환희를 알게 된다. 그릴때 그는 수수방관하고 있게 되지 않는다. 그는 그 씨의 성장을 방해하는 잡초를 제거하고 해를 가리워 주고 물을 주고 할 것이다. 물론 자기 구복을 위해서도 그런 일을 한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해도

일의 보람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 우리교회의 청중은 너무 利己의인 信仰에 매여있기에 그나라에 참여한다는 환희를 모른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는일은 비록 적은 일이나 그것은 실은 그 나라를 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러한 자성은 그로 하여금 생활 전체를 전체속에 결부시키게 할 것이다. 이럴때 그는 이웃, 동리, 그리고 크게는 국가,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두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하나는 참 구원은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집념에서까지 해방될때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내 구원보다 그 나라의 도래에 참여한다는 기쁨을 가질 수 있을 때다. 다음에 비판받아야 할 것은 우리들의 설교가 듣는자들을 재래의 「전도」라는 형태에 몰아넣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할 수 없이 하는 일로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씨를 심고 그것이 경의스럽게 자라나고 있는 사실에 감격하고 그것을 가꾸는 農夫처럼, 자기가 서있는 자리에서 그 나라의 도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감격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